

잊혀지는, 그러나 잊을 수 없는 노래들



이홍재의 세상만사

주필

“비둘기처럼 다정한/ 사람들이라면/ 장미꽃
넋을 우거진/ 그런 집을 지어요” 참 따뜻한 노래
다. 이 노래가 처음 나온 것은 1969년. 지금도 라
디오를 틀면 금방이라도 흘러나올 것만 같은데,
벌써 50년이 다 되어가는 ‘흘러간 옛 노래’다. 하
지만 노랫말이 포근한 데다 가락도 경쾌해서 전혀
예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.

노래는 남았는데 가수는 잊힌 것인가. 최근에
이 노래를 부른 이가 조선의 마지막 황손인 이석
(76)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. 고종 황제의
손자이자 의친왕의 아들인 그는 ‘비둘기 집’으로
반적 인기를 얻기도 했지만 그의 삶은 결코 ‘비둘
기 집’처럼 포근하지 못했다. 월남전 참전 후 부상,
막노동 전전, 가정불화, 자살 기도... 그렇게 순탄
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는 지금은 전주 한옥마
에에 살며 문화 해설이나 강연 같은 일을 하고 있
단다.

우리의 귀에 익은 노래들이 언제 태어났고, 또
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즐거
운 일이다.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읽은 한 권의 책은

무척 흥미로웠다. 노래로 세상을 바꾸고자 꿈꾼
사람들과 시대를 대변한 민중의 노래, 그리고 ‘노
래 운동’의 역사를 오롯이 정리한 책!

한때 나의 애창곡은 ‘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’였
다. 난 90년대 중반 어머니 회갑을 맞아 당시 초등
학생이었던 어린 자식들과 함께 부르기도 했을 정
도로 이 노래를 좋아했다. 노랫말 중에 ‘어머남’이
들어 있다는 것도 회갑연 축하로 선택한 이유였을
것이다. ‘거센 바람이 불어 와서/ 어머니의 눈물
이/ 가슴속에 사무쳐 오는~’

수많은 민중가요의 사연을 기록한 이 책의 목차
를 훑어본 뒤 맨 먼저 ‘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’ 부
분을 펼쳤다. 잘 아는 대로 이 노래는 연세대 출신
가수 안치환이 대학 시절에 만든 곡이다. 그는
1986년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위해 이
노래를 작곡했다고 한다. 졸업 후에 그는 ‘노래를
찾는 사람들’에 합류했고 1989년 2집 음반 작업을
함께하면서 이 노래를 포함시켰다. ‘노찾사’ 2집
은 6월항쟁의 민주화 열기에 힘입어 대중들의 뜨
거운 사랑을 받았다.

민중가요 세상을 바꾸다

“술아 술아~”나 ‘임을 위한 행진곡’ 같은 5월
노래들은 제목만 들어도 눈물이 땀 땀 땀 땀 땀 땀
현 광주 시장의 말이다. 그도 그럴 것이 윤 시장의
삶은 5·18과 떼어 놓으려야 떼어 놓을 수 없다. 처
른한 살, 의사로서 하얀 가운을 입고 5·18을 맞은
그는 피 흘리며 죽어 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분노

했고, 그것은 의사로서 보장된 안정된 삶을 포기
하게 했다.

20년 전 한 방송사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던
윤 시장은 5·18의 진실이 담긴 미국 기밀문서 ‘체
로키 파일’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리기도 했으며
그렇게 해서 미국의 언론인 팀 서록과 ‘5월의 형
제’로 맺어진 인연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.
같은 해 윤 시장은 사재를 털어 5월 광주의 생생한
취재 기록을 담은 ‘5·18 특파원 리포트’를 영문으
로 출판하여 해외에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도 했다.

윤 시장은 지금까지 지나간 세월 동안 5월의 끈
을 놓지 않으며 살아왔다. 항락이나 일탈의 유혹
으로부터 건널 수 있었던 것도 다 5월 덕분이라고
그는 생각한다. 윤 시장은 그런 점에서 ‘5월은 빛
이면서 촉박’이라 했다.

그가 4년 전 무모하게(?) 광주 시장에 도전했던
것도 5월과 전 무관치 않다. ‘광주 정신’은 그의 사고
체계를 지배하는 거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
아니다. 그러나 윤 시장은 이념에만 매몰되어서는
안 된다는 걸 잘 알았다. 무엇보다도 ‘잘 사는 광
주’를 만들고 싶었다. 무참히 짓밟힌 ‘שלום의 광
주’를 ‘희망의 광주’로 탈바꿈시키고 싶었다. 지금
각광을 받고 있는 윤장현 표 ‘광주형 일자리’ 사업
과 불붙을 가리지 않는 기업 유치 노력 역시 그의
이러한 간절한 염원에서 비롯됐을 것이다.

이야기가 잠시 옆길로 섰 듯하지만 다시 책을
뒤적이다 보니 또 다른 많은 노래들이 추억을 불
러일으킨다. 일제 강점기 저항 시인 이상화의 시
에 곡을 붙인 ‘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’. 난 80

년대 말 회사 야유회나 등산 뒤풍이 같은 흥겨운
마당에서 내 차례가 되면, 눈치도 없이 이 노래를
불러 분위기를 절렁하게 만들기도 했다. ‘빼앗긴
들에도’는 당시 음악 교사였던 변규백이 작곡했
는데 1976년 창단된 극단 ‘상향’이 올린 첫 공연작
의 주제가였다고 한다.

“나 태어나 이 강산에/ 투사가 되어~” ‘투사
의 노래’로 더 알려진 ‘늙은 군인의 노래’에 얽힌
사연도 극적이다. 이 노래를 작곡한 김민기는 서
울대 미대에 다니면서 이미 ‘아침이슬’ 등을 작곡
하고 통기타를 치며 노래도 했다. 그가 최전방에
서 근무하던 1976년,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 온 선
임하사가 그에게 군 생활을 마감하는 심경을 털어
놓았다. 이를 듣고 만든 노래.

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

“푸른 옷에 실려 간 꽃다운 내 청춘~” 나는 이
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푸른 옷이 군복인 줄 모
른 채 그냥 죄수복이겠거니 짐작했었다. 처음 군
인들만 부르던 이 노래는 이내 널리 퍼지면서 점
차 대표작인 ‘노가바’(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) 운
동 가요가 되었다. ‘교사의 노래’ ‘농민의 노래’ ‘노
동자의 노래’ 등으로.

1980년대 말 한창 노조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
노래로는 ‘꽃아 꽃아’가 있다. ‘꽃아 꽃아 아들꽃
아/ 오월의 꽃아/ 꽃아 꽃아 아들꽃아/ 다시 피어
나라~’ 5월 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놀이패 신명
의 마당극 ‘일어서는 사람들’에 나오는데 국악의

5음계로 돼 있어 매우 친근하게 들린다.

홀라송 가락에 맞춘, “전두환은 물러가라 물러
가라” 아, 이 노래 또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렀
던가. 1980년 시위 현장에서는 물론 그해 5월16일
‘햇불 대행진’과 항쟁 기간에도 내내 불렀던 노래.
공수부대원들이 공격하면 흩어졌다가 어느새 모
인 시위대들이 다시 힘차게 불렀던 노래.

5월 항쟁이 치열하게 막을 내린 이후 우리의 피
를 펴낼 골짜 한 노래가 또 하나 있으니 바로 ‘오월
의 노래’다. “꽃잎처럼 금방로에/ 뿌려진 너의 젊
은 피/ 두부처럼 잘려 나간/ 어여쁜 너의 젖가슴”
사실에 근거한 이토록 잔혹한 이야기를, 어찌 이
토록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.
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노래의 가사를 누가 썼는지
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. 다만 가락은 미של 폴
나레프라는 프랑스 가수가 부른 ‘누가 할머니를
죽였나’와 불문과 출신 가수 박인희가 번안해 부
른 ‘사랑의 추억’과 매우 흡사하다.

“햇발을 받는 것 중에 퇴색하지 않는 것이 없다
지만 시간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붙들어야 할
것들이 있다. 5월운동과 관련한 노래도 그들 중
하나다.” 폭풍 길고 벌였던 노래 운동의 역사가
사라질까 걱정하여 기록하게 됐다는 저자의 말 중
일부를 인용하면서 나 또한 노래 운동에 몸 바쳤
던 수많은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.

<이 글은 현재 전남대학교 5·18연구소의 전임
연구원으로 있는 정유하 박사의 저서 ‘우리는 노
래한다-민중가요와 5월운동 이야기’(한울, 2017)
에 전적으로 의존했음을 밝힙니다.>

군공항 이전 여론 형성·민간 통합이전 방안 제시를

광주시·시의회 공동 토론회

운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12일 지역한
인 광주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
검토를 지시한데 이어 14일에는 광주시와
광주시의회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가 공
동으로 ‘광주 군 공항 이전 정책토론회’를
가졌다. 참석자들은 이전 해당지역의 공
정적인 여론 형성, 소음 등 갈등 최소화 대
책 마련, 광주(민간)공항 통합 이전 방안
제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놔다.

광주시가 광주시의회 군공항이전특별위
원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주
제 발표와 참가자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.
안기두 광주시 군 공항이전사업단장은
‘광주 군 공항 이전 어디까지 왔나?’라는
주제 발표에서 지난 2016년 8월 광주시의
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한 국방부 타당
성 ‘적정’ 승인 이후 ‘군 공항 이전 적정지
역 조사분석 용역’ 등 추진 사항과 적정지
역으로 압축된 자치단체 방문, 주요 여론
형성층 대상 우호 여론 형성 등에 대해 설
명했다.

문태환 광주시의회 군 공항이전특별위원
회 위원장이 토론자장으로 주경남 시의원,
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
장, 류일영 전 공군본부 연구위원, 조형일
(사)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, 김동현 광주
경찰청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.
토론자들은 광주 군 공항의 이전 효과,
해당지역의 긍정적 여론 형성 방안, 소음
등 갈등 최소화 대책, 민간공항 활성화를
위한 광주공항 통합 이전 방안 등에 대해
의견을 나눴다.

류일영 전 공군본부 연구위원은 “신 군
공항은 기존 248만평 보다 2배 정도인 463
만평으로 건설하기로 해 신공항이 해안가
로 갈 경우 소음피해가 원천적으로 해소될
수 있다”고 말했다.

주경남 시의원은 “군 공항 문제 해법은
상생이다. 광주전남연구원과 광주전남혁
신도시, 남도학숙, 광주전남서울갤러리
등과 같이 광주와 전남이 충분히 협의하
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”고 제시했다.

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
실장은 “광주시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



‘광주 군공항 이전 정책토론회’가 14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.

과 관련해 평가 기준과 이전후보지 결정방
식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보다 적
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”며
“상생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전남도와 더
욱 소통하기를 바란다”고 소통의 중요성
을 강조했다.

조형일 (사)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는

“우선 이전 지역의 우려를 충분히 풀어주
려고 노력해야 한다”고 밝혔으며, 김동현
광주경찰청 사무처장은 “국가 이익 차원
에서도 무안군민의 동의를 얻어 민·군 공
항이 함께 무안공항으로 가는 것이 맞다”
고 말했다.

/윤현석기자 chadol@

무안공항 야간운행 제한 철회...24시간 운항 체제로

부산항공청장 전남도 방문

무안국제공항 야간운항 제한 방침이
철회됐다.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을 의식
해 부산항공청장이 전남도를 직접 방문
해 철회 뜻을 밝혔다.

전남도는 지난 12일 전남도청을 방문
한 조부영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이재영
전남지사 권한대행과 면담 자리에서
“무안공항을 기존대로 24시간 운항 체
제로 운영하겠다”는 뜻을 전달했다고
14일 밝혔다.

부산항공청은 애초 관제사 부족을 이
유로 내년 1월부터 무안공항의 야간(오
후 9시~이튿날 오전 7시) 운항을 제한
할 방침이었다.

현재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노선 30%
가량이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6시 사이
에 운항하고 있다. 전남도와 무안군은
이용객이 크게 부족한 무안공항에 그나
마 장점으로 작용하는 24시간 운항이 불
가능해지면 공항 활성화와 분위기에 찬물
을 끼얹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.

전남도 관계자는 “최근 호남고속철 무
안공항 경우 확정 분위기와 맞물려 공항
을 신속히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책
을 추진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전남도의회는 무안공항의 야간
운항 제한이 철회된 사실을 알고도 지난
13일 철도 촉구안을 채택해 반축을 샀
다.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

무인텔·콘도

- 화순 도곡 온천지구, 3개동 객실 52개
- 대 2980평 건 1050평, 2013년 준공
- 요양병원 연수원 변경가, 감정 70억
- 매 55억, 교환가 010-3605-5000

임야

바로 삽니다. 010-6838-1230

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

판결문, 공증·공사대금·각서·운송료
차용증·거래장부·계약서·입금 내역
녹취등 각종채권상당

▶ 절대 선수금, 출장비용 없음 ◀
(재산조사비,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)

- 채무자 재산, 신용·주거래은행·차량등 파악
- 실거주지파악가능
-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
-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

▶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◀
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
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
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.
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
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(24시간 상담가능)

새한신용정보(주)
010-6833-1600
직통전화 062)513-4306

태양광 발전소 삽니다! 팝니다!

태양광 100K·200K·300K·500K·1메가

- ▶ 견적 설계·시공(지상 임야 노지, 아파트, 주택)
- ▶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.

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

- ▶ 각도 조절, 잡초 제거(물막, 애초기)
- ▶ 모듈 청소(발전량 상승) 관리해드립니다.

태양광 발전 전문기업

※ 영업사원 모집

(주)동현태양광ENG
☎ 063-225-1116
상담 010-8813-4770

한마음 공인중개사

- ▶신가동 4층상가건물 대지 240㎡ 보5천만원 월420만원포함, 매매가 9억5천만원
- ▶송정동 3층상가건물 대지 280㎡ 최고요지 보1억4천만원, 월710만원 포함 매매가 20억원
- ▶양산동 대지 900㎡ 단층건물, 사거리코너 상가건물 신축최고요지, 보9천만 월655만원 포함 매매가 20억원
- ▶금곡동 총창사근처 고급 전원주택 대지, 전, 임야 3500㎡, 주택1층 126㎡(주택정원 잔디밭, 밭, 주차장소재) 사정상급매, 매매가 7억원(조정가)
- ▶화순 도곡온천내 무인텔 대지3000㎡ 건물4층 3동, 객실 37개, 월매출 6천만~7천만원(장부공개가), 용지28억원포함, 매매가 37억원
- ▶담양 월산면 모텔(무인텔, 요양병원 최적함) 대지4200㎡, 계획관리지역, 건물2동있음(현재 담양군 모텔허가 안나옴) 철거후 무인텔허가 가능 매매가 10억원(조건부 협상가)
- ▶광산구 송치동 1800㎡, 1종일반주거지역, 매매가 3억원
- ▶제주시 과수원 1840㎡(도로있음), 1종일반주거지역, 매매가 4억4천만원
- ▶신안군 비금도 염전 (태양광), 25,000㎡ 계획관리지역, 매매가 4억5600만원
- ▶장성군 남면 행정리 440㎡, 1종일반주거지역, 매매가 9300만원
- ▶강진읍 교촌리 3,870㎡ 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4억5천만원

매물 접수, 상담 환영

☎ 문의 010-2314-8567 계림오거리

혈당조절

식후 혈당 상승억제!!!

-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
- 고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.
-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

식후 2배속삭~ 하루 2번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 약!!!

삼성제약헬스케어(주) 당디펜스(D.Defense)
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
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.

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

- ▶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▶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
- ▶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▶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▶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

010-3598-7080